마음속 세상 것인 누룩의 인격 파괴력

(고린도전서 5:1~13)

1.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2.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3.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4.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5.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6.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7.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8.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오늘 말씀 중심으로 <마음속 세상 것인 누룩의 인격 파괴력>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마음속 세상 것인 누룩의 인격 파괴력”

사람의 마음속에 세상 것이 들어오면 누룩이 됩니다. 세상 것은 내 몸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몸이 들어오면 몸을 아끼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은 가족이라든지 이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관계일 수도 있고 돈이나 재물에 속하는 물건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세상 것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누룩이 되고, 누룩은 인격 전체에 기운을 뻗치게 되어 그 결과 인격은 변질됩니다. 그런데 본문에

서 읽었듯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방인 중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인격의 파괴와 부패로 인한 악행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1절에서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라고 하였습니다. 한 남자가 자기 아버지의 여자를 범하고 함께 데리고 사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 일이 공공연하게 알려졌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여전히 이 사람을 교인으로 인정하고 관계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듣고 놀랍니다. 이러한 악행이 일어난 것에도 놀랐지만 악행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반응에 기겁을 하였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방인이란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일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고린도 시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고린도는 “방탕아”라는 별명이 붙은 도시였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천명의 여자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제라고 불렸지만 실제로는 신전 창녀였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면 누구나 창녀인 사제들과 성적 관계를 가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란함이 고린도 전체에서 공적으로 인정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것이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도 심히 문란했기에 방탕아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일은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에게서도 일어나지 않는 악행이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도 아버지의 여자를 범하고 함께 사는 끔찍한 일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행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입에 담는 사람에게서 일어났다는 것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이 사람을 여전히 수용하고 있었다는 것은 더 큰 문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보고 경기를 일으키듯 비판합니다.

2절을 보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였습니다. 통한히 여기지 않았다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죽었을 때 애도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버지의 여자를 범하고 함께 사는 이 사람을 완전히 죽은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본래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면 교인들은 교회가 죽어가고 있음을 보고 애도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이 사람을 너무나

도 자연스럽게 수용하며 여전히 교인으로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일이 나타난 이유를 교만에서 찾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졌다거나 더러움에 대한 불감증이 생겼다는 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교만은 앞에서 계속 이야기된 내용입니다. 분쟁과 분파가 만들어진 이유도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의 이름을 딛고 설 발판으로 삼고 높아지기를 애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아버지의 여자를 취하는 음행을 배척하지 않은 이유도 교만에서 찾고 있습니다.
분파를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 가장 큰 바람은 자신이 속한 파가 커지는 것입니다. 가장 큰 파에 속해서 자신도 같이 높아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 사람이라도 자기가 속한 파에 끌어들이고자 음행을 수용하는 행태까지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일부다처제가 허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첩을 두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첩을 취하는 것은 당시의 관점에서도 이해될 수 없는 악행이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파를 키워야 한다는 교만에서 나온 욕망 때문에 이러한 악행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자면 고린도 교인들의 악함이란 음행한 자 못지않은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쫓아낸다는 것은 출교나 파문이 아닙니다. 흔히 출교나 파문이라고 하면 중세시대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300년경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천년이 넘는 세월인 중세시대는 교황이 전권을 쥐고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교회에서의 출교나 파문은 인생에 엄청난 고통을 가져오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쫓아냄이란 출교나 파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낸 시기는 50년경이었는데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기 전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직 고린도 시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다수의 조직도 아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장 11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로마 교회와 마찬가지로 집 교회 형태로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집 교회 형태로 모이던 고린도 교회 전체가 분쟁과 분파에 휩싸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쫓아냄이란 중세 때의 출교나 파문처럼 세속적 영향력이 강한 사건과는 그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여기서 내쫓음이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닌 고린도 교회에 속한 개

개인의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될 배척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4~5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는 다소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사탄에게 내줄 수 있다는 것인가? 그리고 육신은 멸한다고 했는데 살인이라도 해야 한다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세시대처럼 교황이 온 세상을 지배하던 상황이라면 몰라도 당시는 그리스도를 빌미로 누구를 죽일 수도 없었고 체벌을 가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탄에게 내주었다는 말씀의 의미는 문맥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안과 바깥세상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의 마음에서는 천국의 영역이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육체로 사는 영역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하신 그리스도 안쪽 영역이 아닌 바깥은 이 세상에 마음이 머물러 있는 상태이고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영역입니다. 사탄에게 내주었다는 것은 그의 마음이 그리스도 바깥에 속하게 되었으니, 고린도 교인 각 사람이 그를 형제로 볼 수 없으며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내치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시의 교회는 조직체로써 출교나 파문을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여기서 말하는 사탄에게 내어줌이란 내쫓음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교인이 각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없기에 세상에 속한 자로 내치라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육신을 멸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학자들이 고민하는데 멸함이란 죽이거나 체벌을 가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교인들에게는 다른 사람의 육신을 죽이거나 체벌이나 고통을 줄 권한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을 멸함이란 관계의 소멸을 의미합니다. 교인들은 악행을 저지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 관계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었습니다. 분파를 위해서 끌어안을 수도 있었을 것이며,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다면 이해관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내던 죽마고우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맺어온 다양한 관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육신을 멸하라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서 이 사람의 육신에 대한 관계를 소멸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

회라는 공동체로부터 악행을 저지른 사람의 육신과 연관된 관계와 흔적을 남김없이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벌의 의미가 아닙니다. 죽마고우에게도 버려지고, 장사하는 사람도 손해를 감수하며 관계를 끊고, 육체로 맺어진 관계가 모두 끊어진다면 느끼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치명적 손해로 느껴진다면 자극이 되고 상실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하여 잘못했음을 알고 회개하여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이처럼 육신을 멸한다는 것은 육신 때문에 맺어진 사람과 연관된 모든 관계를 교회 안에서 완전히 제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 개인이 악행을 한 자와의 모든 관계를 끊어내자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악행한 자의 육신의 흔적을 없애버리는 것이 바로 육신을 멸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럴 때 이것을 깊은 아픔으로 받아들인다면 회개할 것이고 영은 구원을 얻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위해서라도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 사람과의 관계를 끊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서 판단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은 단호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판단하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판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5을 보면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주 예수의 능력이란 이 세상에 묶여있는 마음을 탈출시키는 것이고 세상을 등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 안에서 이 사람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들은 모여서 형제를 이룹니다. 마음을 그리스도 밖에 둔 사람과는 형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끊어냄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실천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 사도 바울의 단호한 말씀의 의도가 “누룩”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잘 드러납니다. 6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였습니다. 누룩은 조금만 집어넣어도 밀가루 반죽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악행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앞선 4장 9절에서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매…”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의 끄트머리에 있다는 것은 마음속에 세상을 하나도 담을 수 없는 상태

입니다. 이렇게 말한 사도 바울이 바라는 바는 분쟁과 분파가 일어나고 교인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반인이 된 교회를 다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교회를 재건하려는 차원에서 제일 먼저 이루어질 일로써 악행을 행한 자의 제거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을 마음 바깥에 두면 하나님의 섭리와 창조의 재료가 되지만 세상 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끌어안으면 인격 전체를 부패하게 하는 누룩이 됩니다. 인격이란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입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나오는 언행까지도 어느 것 하나 예외 없이 마음속에 들여놓은 것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 대상은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세상 것을 마음에 들여놓았다면 그것은 썩어서 누룩의 역할을 하며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언행에까지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다만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문제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어차피 세상을 가득 담고 있어서 빈틈없이 전체가 썩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서 음행을 하든지 아버지의 여자를 취하든지 죄가 더 보태지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기겁을 하며 반응한 이유는 이러한 일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세상을 담는 크기는 정도에 따라 구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타락한 이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기계가 아닌지라 이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마음에 세상이 붙어버리는 습관이 체질이 되어버렸기에 이 체질을 제거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지난 시간에 이것을 영적인 성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성숙했는가를 다른 식으로 말하자면 세상 누룩이 마음속에서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음에 담고 있는 세상 것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과 영적인 성숙은 동전의 앞뒷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악행의 정도가 구분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행 사형수입니다. 검은 바탕에 검은색을 칠해도 구분이 되지 않는 것처럼 인격이 온전히 부패해있기 때문에 어떤 죄악을 저질러도 그 악행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상태에서 출발하는 새로운 세계를 살기 때문에 악행은 하얀 바탕에 검은 칠을 하는 것처럼 드러납니다. 칭의가 없는 상태는 검정 바탕의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검은 칠을 해도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칭의를 받았으면 깨끗해진 상태입니다. 이 상태를 전제로 하여 살아갈 때는 아버지의 여자를 취하는 악행이나 분쟁과 분파를 만드는 일은 하얀 바탕에 검은 칠을 하는 것처럼 분명한 차이를 드러냅니다.

이와 관련하여 누룩과 관계되는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술을 만들 때 누룩이 들어갑니다. 분쟁과 분파가 알코올 농도가 20도 정도 되는 소주라면, 아버지의 여자를 취한 악행은 알코올 농도가 40도가 넘는 고량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일반인으로 되돌아가 버린 고린도 교인들을 데리고 교회를 재건하고자 합니다. 7절을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누룩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양과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양을 먹고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먹으면 마음속에 담긴 세상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유월절 빵에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양을 먹을 때에 같이 먹었던 빵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이었습니다. 어린양이신 예수를 먹음으로써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마음에서 세상 것이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만 이 일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쟁과 분파의 영적 상태를 기준으로 잡고 교회를 재건하려고 합니다. 이 분쟁과 분파는 방탕아라고 불리는 고린도 시에 살던 일반인의 상태였습니다. 이 상태를 바닥으로 보고 교회를 재건하려면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 상태가 점점 위로 올라와서 바닥으로부터 멀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여자를 취한 사람은 일반인이 된 고린도 교인들의 수준보다도 한참 아래였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농도 20도의 소주였다면, 이 사람은 농도 40도의 고량주였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교회를 재건하는 일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본문을 읽으면서 새삼 떠오르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방송을 통해 “오늘의 번제”와 “온라인 교회 모임”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메일을 보내시는 분도 계시고 연락을 하는 분도 계시고 강릉을 찾아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각

자 상황은 다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유월절 어린양의 죽음을 먹으면서 마음에 세상 것이 들어와 있는 크기를 점점 더 줄여가는 과정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저는 이런 분들과 함께 여름 휴가철에 며칠이라도 모임 갖기를 원했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모이자고 하면 모이실 분들도 얼마든지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허락하지 않으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니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지 않으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제가 목회할 때의 경험을 보아도 교인들끼리 모일 때에 이상하게 은혜가 되지 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뒷담화로부터 시작해서 세상 이야기로 빠져나갑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투자에 강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예배가 다 끝나고 결국 부동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고량주처럼 40도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누룩의 힘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고량주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염려하는 것 또한 이 누룩의 전염성입니다.
아버지의 여자를 취한 사람은 그 정도로 마음에서 세상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애초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이 상관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12절에서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고 하였던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벌어진 이러한 악행은 끊어내야 함을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러한 사람을 포함한 상태에서 교회는 절대로 재건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고 유월절 어린양이신 예수님의 죽음을 먹는 동안 마음속에 세상이 점점 더 줄어들게 됩니다. 이 일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정도의 차이는 다를 수 있습니다. 세상 크기가 100이었다가 50으로 줄어든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으로 줄어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 크기가 70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데 섞일 때는 모두가 70이 되어버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을 염려하면서 모든 교인 각자가 지독한 음행을 한 자와의 관계를 끊어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보여주시는 뜻 안에서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지금 방송을 10년째 듣는 분도 계시고 5년을 들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분들은 이

미 인생을 십자가 생활화로 살기로 결정하신 분들일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믿음이 성숙하신 분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기도하는 중에 모임에 대해 허락해주시지 않고 온라인상에서만 모이게 하시는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좀 더 각자가 삶의 자리에서 하늘을 향하고 세상을 마음에서 빼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진척되기를 바라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세상이 어느 정도의 크기로 들어있습니까? 본문에 기록된 것 같은 밀가루 반죽을 넘쳐나게 하는 누룩과 같은 악행은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8절의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는 말씀대로 우리 마음에서 세상의 크기가 완전히 제거되는 날이 하루빨리 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진실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만 가득 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언행은 순전함으로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는 뜻만을 따라야 합니다. 십자가를 생활화하여 이러한 진실함과 순전함을 증거로 나타내는 일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온 세상 것인 누룩이 십자가 생활화가 지속되고 정도를 더해감에 따라 완전히 소멸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날을 바라며 목표로 삼아 달려갔듯이 우리도 달려가게 하여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단축하여 주심으로 진실함과 순전함을 누릴 수 있는 여생의 시간이 가능한 빨리 올 수 있게 하시고 많이 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